

설탕세 도입으로 비만과의 전쟁 선포

남아공사무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남아공의 비만율

- 남아공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41.3%)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65.1%, 남성의 31.2%가 비만일 정도로 비만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당뇨병, 심장질환, 암 등 건강문제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음료 및 음식에 함유된 설탕이다. Public Health Nutrition 저널에 따르면 남아공 도시에 사는 유아들은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우유보다 많이 마신다. 설탕이 성인을 넘어 성장기의 유아들에게 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만을 감소를 위한 필연적 선택 '설탕세'

- 이에 남아공 정부는 2018년 4월 6일부터 '설탕세'를 시행했다. 설탕세 SSBs(Sugar Sweetened Beverages)란 시럽·농축액의 설탕에 적용하는 세금으로서 100mL당 4g을 초과하면 g당 2.1 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범국가적 트렌드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남아공의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20%의 설탕세 인상은 남성의 비만율을 3.8%, 여성의 비만율을 2.4% 줄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그 실효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아공 유통매장의 음료코너

- 한편, 설탕세의 시행으로 코카콜라와 같은 기존 생산업체들은 설탕의 함유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Light·Zero Sugar 음료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관련 음료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설탕관련 산업분야의 연간 판매량은 27% 감소했다.

웰빙트렌드에 초점 맞춘 제품 홍보 필요

- 설탕세는 설탕함유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식품업체들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Sugar Free, Gluten Free 등의 웰빙 트렌드에 주목해 건강한 식품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두유, 알로에 등의 웰빙 제품이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데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www.treasury.gov.za, www.hsrc.ac.za, www.health24.com, www.iol.co.za, www.wsj.com
Manyema M, Veerman LJ, Chola L, Tugendhaft A, Sartorius B, Labadarios D, et al. (2014)